

하나님의 계획 (사도행전 16:6-10)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킨다. 성찬식세례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바란다. 광야 생활하면서 언약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가 몇 개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언약, 성막, 세절기 같은 것들이다. 당시에 글은 있었다. 그리고 모세가 이미 창세기를 썼기 때문에 종이는 아니지만 글을 쓸 곳은 있었다. 그런데 그 책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 형식으로 언약이 전달되고 있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각인하는 그런 시대였다. 그러니까 지금은 회생제사 안드리지만 그 때는 양을 직접 잡아서 회생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고백을 하였다. 이런 시대에는 절기를 정해 놓고 일년에 한번씩 지키게 하는 것이 언약의 흐름에 아주 중요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서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계획이었다. 이 세절기중 유월절이 시작이었다. 날짜로는 제일 첫째달 14일이었다. 그리고 그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다. 맥추절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일곱째달 15일에는 추수감사절, 즉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였다. 레 23:34을 보면 이 날에 여호와를 위해 7일동안 지키라고 했다. 첫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이레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여덟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라고 하였다.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대표적인 것이 번제였다. 여덟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안식후 첫날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다. 그리고 38절에는 헌물에 대해 말했는데, 이것은 모든 드려야 하는 제물들 외에 드리라고 하였다. 이 날 드리는 예물은 안식일날 드리는 것 외에 개인적인 서원, 자원예물 외에 또 다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이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구원에 대한 감사이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창고에 모은다는 것이다. 영적인 의미로는.. 그래서 그 날, 하나님께 감사예물을 드려라. 그 이후에도 계속 읽어보면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날에도 안식하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칠일 동안에는 초막에 거주하라고 하였다. 집에 살지 말고 텐트같은 곳에 살라는 것이다. 이유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초막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날 언약의 피를 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하는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 때는 책도 없고 메시지도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지켜서 하나님의 언약이 모든 백성의 마음에 각인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니가 언약의 피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드리라는 것이다.

1. 하나님의 계획

오늘 본문은 사도바울이 전도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때 일어났던 역사적인 일이다. 복음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가게 된 그 날 밤의 일이다. 복음은 인간이 저주에서 나오는 길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가는 길에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고, 지역, 나라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임했다. 그것이 유럽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되는 날 밤의 일이다. 물론 사도바울의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꿈에 나타난 마게도나 사람 때문에 유럽으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방향을 바꾼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사는 것은 귀하고 쉽고 좋은 일이다. 만일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바울에 대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사도바울은 복음을 아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9:1절을 보면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메섹에도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것이었다. 아주 살기가 등등했다. 가는 길에 그리스도를 만났다. 상상치도 못하게 그 핍박하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나사렛 예수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는 것은 상상치도 못했다. 그래서 삼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는데, 아나니아가 삼일 후 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 그리고 즉시로 나가서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와서 지역의 사람들을 잡아 갈것이라 생각했다. 눈뜨고 나서 말을 회당으로 가서 거꾸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였다. 다메섹의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이 왜 이러는가 했을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월절이다. 십자가의 보혈이 그 언약의 피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도 바울은 구약을 다 외우고 있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때 하나님이 사명을 함께 주었다. 사도행전 9: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그 지역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준것인데,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안수하러 가라고 했는데, 안간다고 해서 그 때 하나님이 설명한 것이었다. 그 안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들어 있는 것이었다. 이 두가지가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수 있는 본질적인 언약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과 이것을 전하는 사명하고 이 두가지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난다. 대부분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산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거의다 창세기 3장문제가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이다. 내 중심이다. 물론 옆집 사람을 위해 살겠는가?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의 사이에도 내 중심으로 사는게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면 자동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말씀대로 이뤄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면 말씀대로 내 인생에 성취되는 것이다. 말씀이 임하면 현장의 모든 것 역전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반드시 세계복음화 작품이 나오게 된다. 인생 무조건 저주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사단 아무리 날뛰어도 정복하게 된다. 사건 일어나도 필요 없다.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면 그냥 말씀 성취되는 것이다.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다. 왜 이런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절대 바뀌지 않는다. 아무도 터치하지 못한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권세가 있다. 이 두가지가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 능히 알고 있고 할수 있다. 그리스도 알고 있다. 그리고 무엇해야 되는지 우리 다 알고 있다. 세계 복음화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을 보면 시대적인 터닝포인트가 일어난 것이다. 사도바울을 중심으로 아주 시대적인 터닝포인트이다. 아시아로 갈것인가 유럽으로 갈것인가. 우리도 이 일 할수 있다. 시대적인 터닝 포인트 만들 수 있다. 이유는 한 개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시대적인 복음이다.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들어가면 시대적인 터닝 포인트가 우리 인생 안에 계속 일어나게 된다. 자동으로 와야 한다. 왜냐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신자는 인생을 이것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안 사

는 것 때문에 힘이 든 것이다. 미국에 만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시대적인 일이다. 진짜 유일성의 응답이다. 아무도 못하고 있다. 누가 하고 있는가? 미국에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나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 분들은 잘 받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안받으려야 안 받을수 없다. 하나님의 선택한 자가 있다. 그 사람에게 복음 전달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다. 우리가 미국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는가?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뜻도 아니다. 선택된 사람에게만 전하면 된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 전할 제자를 찾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것은 시대적인 터닝포인트 될수 있다. 기도해야 한다. LA 컨퍼런스를 일월에 하는데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상관 없다.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 있으면 가장 큰 컨퍼런스이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도 복음듣고 좋아하는 하지만 제자가 만나오면 실패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였다. 굉장히 고생 많았다. 그러나 받은 사명을 놓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는 일을 놓지 않았다. 결과가 시대의 문화를 바꾸어 버린 것이다. 시대적인 작품이 나왔다. 무슨 일이든지 다 그렇다.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은 없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은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가 아주 중요하다. 그런 중에 많은 어려움과 응답을 지나가게 된다.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작품을 만드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런 시대적인 인생 작품 만들 수 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적인 복음을 주었기 때문이다.

2. 승리와 정복

하나님의 계획에 인도를 받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승리하고 정복하게 된다. 아무리 귀한 전도 선교라 해도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하면 안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귀한 존재이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이. 피조물에 불과하다. 언제 깨달냐 하면 결정적인 문제를 만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때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쉽고 간단하다.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나와 있다. 세계복음화를 향해 사는 것이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실은 내 인생이 내 것 아니다. 내가 내 인생 만들 수 없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하고 그것이 지혜이다. 나를 죽이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들어와서 언약이 되어야 한다. 내 평생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 즉시로 영적 능력 나타난다. 내 마음에서부터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 힘이 난다. 즉시 "해보자"하고 힘내게 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계획 따라갔고, 그 시대 문화를 바꾸었다. 완전히 로마가 뒤집어졌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인생을 여기에 맞추면, 소소한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6:33절은 다른 것은 구할 필요도 없다고 하였다. 여기에 내 인생 맞추면 작품 나오는 것이다. 틀림 없다. 나를 고치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언약

로 잡는 것이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이 아니다. 사단이 나에게 하기 싫은 마음을 주는 것이다. 영적 문제이다.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사단이 잘못되었다. 내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다. 책임은 내게 있다. 그러나 원인은 내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평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되고 하기 싫다. 그게 어찌 내 안에서 나왔겠는가? 내 안에 뭔가 있다는 것이다. 이걸 꺾어야 한다. 전에는 이 눈이 우리에게 없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치고 그랬다.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다. 이 눈이 없어서. 그게 아닌데. 하나님하고 생각이 맞아야 한다. 말씀과 내 인생이 맞지 아니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종류에 대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할수 있는 것 하면 된다. 흑실패 할지 모르지만 다시 시작하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 된다. 무엇을 할 것인가 종류가 중요한 것 아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역사 일어난다. 그 이유와 방향이 하나님 계획과 맞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시간 정복해야 한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돈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중요하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것을 다 경제에 잡혀서 아까운 시간을 다 날리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흑암 세력 꺾어야 한다. 일하지 않고도 돈 벌어야 한다. 보통 버는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할만큼 벌어야 한다. 일을 안하고도 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체질이 되어서 일을 안하고 어떻게 돈을 버는 생각이 들것이다. 그런데 일 안하고 돈 버는 사람이 꼭 찼다. 그냥 단지 한두푼이 아니다. 내가 세계복음화 하겠습니까. 돈 주세요, 내가 이 정도 기도할만큼 내 마음이 세계복음화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오늘도 방해하는 이 뱀의 머리를 정말로 박살내 주시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다. 이게 마태복음 6:33절이다. 다른거 기도할 필요 없다. 내 소원은 이것뿐이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사도바울은 가장 좋은 모범일 것이다.

고후 4:8-9절에는 우리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꺼꾸러 뜨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권세이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세계복음화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사도바울은 이 두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살았다. 누구에게나 나오는 작품이나, 시대적인 작품, 문화를 바꾸었다. 이상승배하던 로마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완전히 다 바뀌어 버렸다. 죽어가던 미국, 여기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점화를 해야 한다. 미국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에서 계속 사단의 문화로 넘어가는 것을 체험하지 않는가? 이것을 멈춰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 일을 할수 있다면 이것은 유일성의 응답이다. 할수 있다. 이유는 한 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대적인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아무 이유없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이유 있다. 그런데 시대적인 복음을 주셨다.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겠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겠는가? 다시 한번 언약 되기 바란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면 흑암세력 무너진다. 반드시 저주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권세가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게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사도바울은 이런 면에서 최고의 예이다. 다시 한번 언약 되기 바란다. 우리가 해야 한다. 할수 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